

# 나주, 민선 8기 첫 주민 대화 성료...건의·애로사항 409건 챙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민선 8기 첫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현장 중심의 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피드백에 나선다.

시는 지난 달 15일 금천면을 시작으로 3일 공산면까지 윤병태 시장과 20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총 9일 간 오전·오후 일정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대화는 2023년 주요 시정 방향 및 시책 브리핑, 읍·면·동정 보고, 대화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시장은 시정 브리핑, 동정 보고를 간소화시키고 질의응답을 통한 건의·애로사항 수렴, 주민 정책제안 등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는 등 현장 속 생생한 목소리 경청에 집중했다.

또 당일 예정된 대화에 앞서 출근 첫 일정으로 사전 검토 보고회를 주재하며 지역별 주요 현안, 읍·면·동정을 파악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현장 대화와 서면을 통해 수렴된

주민 건의·애로사항은 읍·면·동별 평균 20건 이상인 총 409건으로 집계됐다.

소관 국별 통계 건수는 마을 안길 및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안전도시건설국이 255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광문화환경국(14%), 미래전략산업국(9%), 농업기술센터(8%), 행정복지국(5%), 실·보건소(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RF열병합발전소 재가동,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분리, 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 이전, 퇴비사업장 악취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보급 확대, 체암 내대용 장군 생가 일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자전거길 개선·파크골프장 신설, 119지역대 설치, 면 지역 반려동물 순회 진료 등 복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레저·체육 등 분야별 정책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김동철 기자

## 장성군, '성산 은행나무' 이식 시작

장성군이 장성을 성산마을 은행나무를 옮겨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성산 은행나무는 열매와 잎을 채취해 주민 소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1970년대에 식재된 가로수다. 마을을 노랗게 물들인 풍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마을의 상징처럼 자리잡았지만,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자라난 뿌리가 보도블록을 망가뜨리거나 건물 담장에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시장 수요 감소로 바닥에 쌓인 채 방치된 열매들은 악취를 자아냈다.

장성군과 성산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수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군민참여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지난해 말 장성군과 지역민들은 은행나무가 이식될 장소로 마을과 가까운 장성소방서 옆 장성천

변을 최종 낙점했다. 군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이식 작업에 착수했다.

장성군은 성산 은행나무가 새롭게 자리잡게 될 장성천 일대를 마을의 역사가 담긴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나무가 있던 도로변은 한층 탁 트인 경관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식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나무 주위로 관개시설, 상수도, 전기선, 통신선 등이 지나가다 보니 뿌리와 가지가 다치지 않게 나무를 들어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

김한중 군수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은행나무를 최대한 보호하고, 안전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50년 추억을 품은 성산 은행나무를 아름다운 경관으로 재탄생시켜 성산마을의 역사·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 담양군 농업인대학 추진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품목인 딸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딸기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한다.

제16기 담양군농업인대학은 딸기 수경재배반 과정으로 딸기재배 기본생리의 이해, 화아분화, 정식 전·후 병해충 방제 등 딸기재배 기본이론과 수경재배 양액조제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이번 딸기 수경재배반은 시설하우스 내 온·습도 관리, 생육시기별 양액조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해 영농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은 3월 17일까지이며, 4월 5일 개강해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관내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딸기재배 농가 중 수경재배로 딸기를 생산하거나, 수경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대학은 이론과 실습, 현장 견학을 병행해 교육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며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영지원과(061-380-34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진성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영광 문화원에서 '제5회 옥당골 난(蘭) 꽃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는 영광군의 3개 난우회로 구성된 영광난연합회 36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가꾼 한국 춘란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되고,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 등 86점의 작품을 시상했다. /영광군 제공

## 영광군, '제5회 옥당골 난(蘭) 꽃' 축제 성료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영광 문화원에서 '제5회 옥당골 난(蘭) 꽃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는 영광군의 3개 난우회로 구성된 영광난연합회 36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가꾼 한국 춘란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되고,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 등 86점의 작품을 시상했다.

늘 푸른 난은 곳곳한 지조와 겸손

의 미덕을 두루 갖춘 모습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삶의 여유와 운치를 전해주는 식물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축사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영광군의 우수한 한국 춘란을 발굴하고 난 문화의 대중화로 군민 정서 함양과 애란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2024년에는 화순군, 함평군과 같은 규모의

전국 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11월에 개최하던 난(蘭) 꽃 축제를 3월에 개최해 화려한 색을 가진 난 꽃과 절제된 무늬와 색상, 고고한 아름다운 곡선의 자태를 뽐내는 잎 모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정률 기자

## 구북규 화순군수, 신임 이장들과 간담회

화순군(군수 구북규)이 구북규 화순군수가 최근 소통과 신뢰구축을 위한 신임 이장들과 군정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 임명된 신임 이장 50여 명과 함께 민선 8기 구북규 화순군수의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선 8기 군정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업무의 단순 보조자가 아닌 지역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군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을 청취했다.

군수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스마트 도시 조성과 함께 주민 활동 지원 강화 ▲드론 활용 공동 방제 등 농업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

이용 증가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충 등 다양한 건의가 있었다.

신임 이장 중 한분은 "다양한 자리에서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자주 만나 뵈고 소통할 수 있어 좋다"며, "항상 활동적으로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 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건의 사항 등 이장님들과의 대화 내용을 발전적으로 수용해 현안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새로운 화순, 군민이 행복한 화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 군수는 "지역 이장님들과 함께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화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9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